인문연구 제90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0, No. 1, pp.1~34
http://dx.doi.org/10.21211/JHUM.90.1

『청춘』의 현상문예와 근대 초기 한글운동*

손동호**

〈차 례〉

1. 들어가며
2. 문예 부흥의 과제와 현상문예
3. 현상문예를 통한 시문체의 보급과 확산
4. 나가며

【국문초록】

『청춘』은 근대문학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근대문학 이론을 소개하는 한편 『청춘』 필진들이 직접 작품을 창작 발표함으로써 순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서양 문학을 번역하여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고전문학 발굴에도 힘썼다. 또한 『청춘』은 현상문예를 시행하여 신인작가를 배출함으로써 문단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국어국문학

『청춘』은 종간될 때까지 현상문예를 시행하며 당선작 게재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독자들에게 선본(善本)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문체의 습득과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춘』 필진들은 조선 문예의 부흥을 꿈꾸었다. 그들은 신문학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신사상'과 '근대적 문체'를 꼽았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형식적 요건에 치중한 바, 그 핵심은 '시문체(時文體)'였다. 시문체는 글의 종류에 따라 한문 문장의 개입 정도가 다른 문체로, 우리말 어법에 맞는 글쓰기 즉 '언문일치'를 지향하였다.

시문체 확산의 주역은 『청춘』의 독자들이었다. 문학지망생,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한글운동가 등 독자들은 시문체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주시경의 제자를 비롯한 한글운동가들은 반복적으로 작품을 투고하여 한글 규범의 정립 및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청춘』은 '우리글로 우리의 사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명제를 시문체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결국 『청춘』의 현상문예가 근대문학뿐만 아니라 근대어학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주제어 : 청춘, 근대문학, 신문학, 시문체, 현상문예, 주시경, 독자

1. 들어가며

본 논문의 목적은 1910년대 대표적 잡지 『청춘』[1]이 시행한

1) 본 논문은 도서출판 역락에서 2007년에 영인한 『청춘』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창간호는 1914년 9월 28일 인쇄, 10월 1일 발행하였으며 매월 28

현 상문예의 내용과 성과를 밝히는 데에 있다. 1910년대는 일제가 무단통치를 시행하여 조선 내에서의 매체 발행이 매우 제한된 시기였다. 총독부는 신문지법을 비롯한 보안법, 제령(制令) 위반, 치안유지법, 명예훼손죄 등의 사법처분권과 매체의 삭제, 압수, 발매금지, 무기정간 등의 행정처분권을 동원하여 조선 내의 매체를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부를 비판하는 언론은 봉쇄당하고, 식민지의 언론기관은 총독부가 독점하여 매체를 주요 발표 기반으로 하는 문학 역시 급격히 위축되었다.[2] 이러한 문학의 암흑기에 『청춘』은 대중 교양 잡지를 표방하며 등장하였다.

『청춘』은 1914년 창간 이래 1918년 9월 26일 통권 15호로 종간되기까지 1910년대 근대문학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청춘』은 식민지 시기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발표지면으로 기능하였다.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방황」, 「윤광호」 등 단편소설과 최남선의 시조와 신체시 그리고 현상윤의 창작물을 발표하여 조선문단의 순문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너 참 불상타」, 「실락원」, 「돈기호전기」, 「캔터베리記」 등 서양 문학을 번역하여 근대문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문학 관념을 새롭게 하였다. 동시에 조선의 고전을 수집, 정리하여 고전문학의 발굴 및 정비에도 힘썼다.

특히 『청춘』은 '특별대현상'에 이어 '매호현상문예'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여러 신인작가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문학양

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였다. 저작자 및 발행자는 최창선이었으며, 인쇄 및 발행소는 신문관이었다. 판권장에는 '구독가의 주의', '정가표', '광고료'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잡지는 매호 1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정가는 20전이었다. 이광수를 비롯하여 최남선, 현상윤 등이 주요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2) 김규환, 『일제의 대한언론·선전정책』, 이우출판사, 1978, p. 128.

식이 정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3]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는 근대 독자참여제도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1900년대 『대한자강회월보』(1906), 『태극학보』(1907) 등에서 선보였던 독자투고와, 『장학보』(1908)가 시도했던 현상문예를 계승하여, 현상문예 제도의 명맥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1920년대 『조선문단』, 『개벽』 등의 잡지 매체가 주도한 본격적인 문인재생산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4]

이광수, 최남선, 현상윤 등 『청춘』의 필진들은 근대문명의 사회적 전면화를 추구하였다. 그들은 서구문명이 달성한 근대의 주체화를 통해 식민지 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민지라는 상황 하에서 그들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근대문명의 전면화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데, 그들이 주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영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그들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근대문명의 실천적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했고, 그 결과 문학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문학의 사회적 제도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현상문예는 근대문학 재편의 기제 중

---

3) 한진일, 「근대 단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신지연, 「『청춘』의 독자문예란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53권, 2004, pp. 485-512.; 김미정, 「근대초기 현상공모 일고찰」,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 제18권, 2005, pp. 151-181.;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제43권, 2008, pp. 325-346.;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독자의 형성과정」,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43권, 2011, pp. 163-190.; 정영진, 「제도로서의 작가의 형성 과정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8권, 2017, pp. 163-192.

4)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98권, 1987, pp. 211-238.;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제도 연구(1)」,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43권, 2011, pp. 97-128.; 정영진, 「현상 단편소설 모집의 기원 『장학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2권, 2016, pp. 89-117.

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동력이었다.[5]

선행연구를 통해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가 근대문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의 성과를 한글운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청춘』의 현상문예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나[6]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청춘』의 현상문예 모집공고문과 당선작, 그리고 선자평을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성과와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문예 부흥의 과제와 현상문예

『청춘』은 제6호(1915년 3월 1일 발행)까지 발행하고 '국시위반'으로 정간을 맞게 된다. 2년 간의 정간 이후 1917년 5월 16일 제7호로 속간되는데, 이때 현상문예 모집공고가 처음 등장한다.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는 '특별대현상'과 '매호현상문예' 두 종류였다.

먼저 '특별대현상'[7]의 모집부문은 논문과 단편소설이었다. 논문

---

5)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제11권 제45호, 2004, pp. 221-260.

6) 『청춘』 현상문예의 당선자 중 일부가 주시경의 국문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주목한 이는 한진일이다.(앞의 논문, pp. 64-65.) 이후 한기형(앞의 논문, pp. 248-249.)과 김미정(앞의 논문, pp. 173-175.)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7) '특별대현상'의 모집공고는 『청춘』 제7호(p. 125.), 제8호(p. 75.), 제9호(p. 125.)에 실렸으며, 당선작은 제11호 부록에 80쪽 분량이 게재되었다. '특별대현상'의 모집공고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의 과제는 '고향의 사정을 녹송(錄送)하는 문(文)'과 '자기의 근황을 보지(報知)하는 문(文)' 두 가지였다. 논문은 2,3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순한문체만 제외하고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세부적으로 '고향 사정'은 고향에 대한 제반 사정을 지인에게 알리는 글이므로 장황하지 않을 것, 정취가 있을 것, 그리고 통일성과 조직성을 갖춘 문장으로 쓸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자기 근황'은 최근에 자신이 경험하거나 감상한 바 또는 견문한 바를 친지에게 알리는 글이므로 정취 있는 필치로 과장이나 허황되지 않게 진솔하게 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편소설은 학생을 주인공으로 하되 음탕하거나 난잡하지 않게 써달라고 하였다. 단편소설은 11,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서설체(叙設體), 기술체(記述體), 서한체(書翰體) 모두 무방하다고 하였다. '특별대현상'의 응모 기한은 1917년 7월 15일까지로 두 달 정도였으며, 심사를 거쳐 9월에 발표한다고 하였다. 논문은 최남선, 단편소설은 이광수가 각각 고선(考選)을 맡았다.

'매호현상문예'[8]는 '특별대현상'과 비교할 때 논문이 제외되는

☞特別大懸賞☜ / 一, 故鄕의 事情을 錄送하는 文 崔六堂 考選 / 自己故鄕의 山河風土며 人物事蹟 等 諸般事情을 在遠한 知人에게 報知하는 文이니 文體와 意匠과 長短은 任意로 하되 張皇치 아니한 中에 要領을 得하며 煩瑣치 아니한 中에 情趣가 有하도록 함이 可하며 엇더케하든지 모든 事實을 料理按排하야 統一과 組織잇는 文章을 成하여야 함은 毋論이니라 / 一, 自己의 近況을 報知하는 文 崔六堂 考選 / 學生이면 工夫生活과 農人이면 耕作生活과 其他 엇더한 生活을 하는 이든지 自己가 最近에 經歷한 바 感想한 바 聞見한 바 中 무엇이든지 情趣잇는 筆致로 寫出하야 親知에게 報知하는 文이니 아못조록 眞率을 守하고 誇虛를 避함이 可함 / ●制限 一行二十三字 百行內外 純漢文만 避하고 文體任意 ●賞給 一等五圓, 二等參圓, 三等壹圓, 各若干人 / 一, 短篇小說 李春園 考選 / 學生을 主人公으로 하야 猥雜에 流치 아니하는 範圍에서 體裁, 意匠은 任意로 할 것이며 滑稽味를 帶한 것도 無妨함(以上 三種應募는 原稿始面에 반드시 讀者證을 貼付하시오) / ●制限 一行二十三字 五百行以內 叙設體記述體書翰體俱無妨 ●賞給 一等十圓, 二等五圓, 三等三圓, 各若干人 / 一, 應募期限 來七月十五日本館着, 九月發行倍號發表

8) 每號懸賞文藝爭先應募하시오 / 一, 時調(卽景卽興) 入選壹圓書籍券 / 一,

대신에 다른 모집부문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모집부문은 시조, 한시, 잡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등으로 주로 문예에 집중하였다. 시조와 한시의 과제는 '즉경즉흥(卽景卽興)'이었으며, 한시는 7절 7률만 허용하였다. 반면 잡가와 신체시가는 길이나 과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산문장르인 보통문은 700자 정도의 분량을 제시하고, 순한문체는 허용하지 않았다. 단편소설은 2,3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자 약간 섞은 시문체(時文體)로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밖에 한사람이 여러 부문에 걸쳐 투고할 수 있었으며, 타인의 개찬(改竄)이나 표절을 발견하여 고발하면 고발인에게 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현상문예의 고선은 본지 편집국원 및 전문 대가에게 촉탁한다고 하였다. '매호현상문예'의 응모 기한은 매월 말일까지였으며, '특별대현상'과 마찬가지로 두 달 후인 제9호부터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잡지의 속간과 동시에 현상문예를 대대적으로 시도한 사실을 통해 현상문예 시행의 일차적인 목적이 독자 확보에 있었음을 알 수

漢詩(卽景卽興)(七絶七律만) 入選壹圓書籍券 / 一, 雜歌(長短及題任意) 入選賞金五十錢至五圓 / 一, 新體詩歌(調格隨意) 入選賞金五十錢至五圓 / 一, 普通文 一行二十三字三十行以內, 純漢文不取 入選賞金 天貳圓, 地壹圓, 人五十錢 / 一, 短篇小說 一行二十三字百行內外 漢字 약간 석근 時文體 入選賞金 天參圓, 地貳圓, 人一圓 / 一, 以上은 每月末日까지 接受하야 그 이듬이듬달 發行號에 發表호대 時限에 未到하얏슬지라도 次回에 入하야 考選함 / 一, 應募는 반드시 本誌의 讀者인 後에 許하나니 故로 本紙에 印入한 「靑春讀者證」을 原稿始面에 貼付할 事 / 一, 一人이 幾種幾編이든지 隨意로 應募함을 得하며 兩種以上을 投稿할 時에는 其中一種에만 讀者證을 貼付하면 可함 / 一, 原稿는 반드시 楷字로 書하며 應募者의 住所, 氏名을 題目下에 明記하며 封皮左方에 『靑春懸賞文藝』 六字를 記入할 事 / 一, 賞金及書籍券은 本誌發行後一週日內로 發送할 터이니 郵便抵達日數를 料量하야 未着된 時에 卽時通問하시옵 / 一, 發表는 第九號로 始하야 每號에 例續함 / 一, 考試는 本誌編輯局員과 밋 專門大家에 囑托하얏슴 / 一, 他人의 改竄이나 剽竊임을 發見하야 一週日內로 告發하면 告發人에게 賞物을 代送함

있다. 현상금 지급과 당선작 발표라는 유인책을 동원하여 독자들의 매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같은 시기 『매일신보』 현상문예의 최고 현상금이 3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청춘』이 제시한 10원이라는 현상금은 독자들의 참여열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그리고 당대 가장 명망 높은 이광수와 최남선이 현상문예의 고선을 맡았다는 점과, 당선될 경우 해당 잡지에 독자들의 작품을 게재한다는 조건 역시 독자의 투고열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었다. 『청춘』은 현상문예의 응모자격을 잡지의 독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작품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잡지에 있는 '청춘독자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했다. '독자증'은 잡지 한 권에 1매밖에 없었으므로 독자들의 현상문예 응모는 잡지의 판매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청춘』이 현상문예를 시행한 또 다른 목적은 신인작가의 발굴에 있었다. 『청춘』은 제10호(1917년 9월)부터 종간호인 제15호(1918년 9월)까지 현상문예 당선작을 지면에 실었다. 당선된 작품은 총 212편이며 118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애초 응모규정에 중복지원을 허용한다고 밝혀 중복당선자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118명의 당선자 중에 43명이 중복당선자로 비율로는 36%나 된다. 2회 당선자는 구성서, 김두식, 김려환, 김순석, 김응도, 박영곤, 안택순, 양주영, 엄항섭, 이강석, 이경, 이운벽, 이익상, 이재갑, 이택용, 조준기, 최국현, 최승택, 최중함, 최학송, 최홍범, 한동찬, 홍선표이다. 3회 당선자는 김현순, 박연의, 설형식, 성도, 신영철, 이남두, 이상춘, 주병건, 황규만 등이며, 4회 당선자는 유종석, 정용모, 최해종, 홍기주, 5회 당선자는 배재황, 백낙영, 차용운, 6회 당선자는 김윤경, 나시규, 8회 당선자는 방정환이었다. 노문희는 무려 13회나 당선되었다.[9] 이들 당선자들 중에서 이후 문단에서 활동하게

9) 당선작 중에서 실제로 『청춘』에 실린 작품은 66편이다. 이들 중에서 2회

되는 인물로는 강용흘, 김동환, 김명순, 김형원, 박달성, 방인근, 방정환, 유광렬, 유종석, 이상춘, 이익상, 주기철, 주요한, 최국현, 최서해(최학송) 등을 들 수 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15명이나 배출한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청춘』이 신인작가의 발굴을 위해 현상문예를 시행했으며,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확인시켜 준다.[10]『청춘』제13호에는 방정환의「김장자노래」, 제15호에는 이상춘의「백운」이 실렸다. 자신들이 발굴한 신인에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이광수, 최남선, 현상윤 등 특정인물이 전담해 온 문예란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신인의 발굴은 작가군의 확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작품의 안정적인 공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11]

지금까지 설명한 독자 확보와 신인 발굴 외에『청춘』은 조선의 문예를 부흥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상문예를 시행하였다. 현상문예 당선작을 발표하기로 한『청춘』제9호(1917년 7월 26일 발행)에는 '지면의 상치(相値)'로 인해 당선작이 실리지 못하였다. 편집진은 당선작을 게재하는 대신에 편집자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편집자는 독자와 사상적으로 교제하고, 신문단에 의미 있는 파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현상문예를 시행한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12] 그리고 '특별대현상' 소설 부문의 고선을 맡았던 이광수는

이상 당선된 자는 다음과 같다. 김윤경(5), 나시규(3), 노문희(6), 방정환(5), 배재황(3), 백낙영(2), 설형식(2), 유종석(3), 이경(2), 이상춘(2), 이운벽(2), 주병건(원해생)(2), 차용운(3), 최승택(2), 한동찬(2). (괄호 안의 수는 당선 횟수를 의미함)

10) 한진일, 앞의 논문 pp. 62-63. 한진일은『청춘』이 청년 또는 학생을 주된 독자층으로 설정하여 일찍부터 현상문예를 통한 전문작가 배출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는 현상문예의 상금 액수와 춘원의 선후평을 근거로『청춘』의 '특별현상문예'가 단순한 독자 참여를 넘어서 새로운 문단을 형성할 '새사람'을 키워 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1) 하지만 잡지가 폐간됨에 따라 해당 기획의 성공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청춘』이 시행한 현상문예가 『매일신보』가 시행한 신년문예와 달리 순문학적 목적으로 소설을 모집한 최초의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3] 신문단에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나 순문학적 목적의 소설 모집 등은 모두 현상문예를 통한 문예 부흥으로 귀결된다.

『청춘』 현상문예의 이러한 시행 취지는 같은 시기에 현상문예를 시행한 『매일신보』와 매우 대조적이다. 『매일신보』는 1917년 신년에 발표할 '신년문예' 현상모집 공고[14]를 냈다. 이 공고문을 통해 『매일신보』는 신년호의 한 색채를 더하는 한편 신년을 계기로 응모자들의 학술 천재(天才)를 본 지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년문예'를 시행한다고 시행 취지를 밝혔다. 『매일신보』의 모집부문은 단편소설, 논문, 신조가사(新調歌詞)였다. 먼저 단편소설의 분량은 1행 20자 60행 이내로 1,200자 정도였다. 문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시대적 배경만 현재로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논문은 '일선동화론'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분량은 1,600자 정도였다. 끝으로 신조가사는 특별한 과제 없이 현대에 유행할 가치가 있는 작품을 요구하였다. 분량은 제한을 두지

12) 「매호현상문예(每號懸賞文藝)」, 『청춘』 제9호, p. 126. "懸賞文藝欄을 두기는 一邊 讀者허고의 思想上 交際의 機會를 짓는 同時에 또 一邊으로는 바야흐로 勃興하려하는 新文壇에 意味잇는 一波瀾을 寄與코저 함"

13) 춘원생, 「현상소설고선여언」, 『청춘』 제12호, p. 97.

14) 「신년문예모집」, 『매일신보』, 1916년 12월 3일 1면
新年文藝募集 / 一, 短篇小說 (時代는 現在에 適ᄒᆞᆫ 者) 一行二十字六十行以內 賞金 參圓 / 一, 論文 (題는 「日鮮同化論」) 十六字詰百行以內 賞金 (甲) 一圓五十錢 同 (乙) 一圓 / 一, 新調歌詞 (題는 隨意 但 現代에 流行ᄒᆞᆯ 價値가 有ᄒᆞᆷ을 要ᄒᆞᆷ) 闋數는 無制限 賞金(甲) 二圓 同 (乙) 一圓五十錢 同(丙) 一圓 / 左記者는 本紙新年號의 一色彩를 添ᄒᆞ기 爲ᄒᆞᆷ만 안이라 新年元旦을 機ᄒᆞ야 應募諸彦의 學術天才를 本紙面으로 解決코저 ᄒᆞᆷ이니 原稿는 來二十日ᄭᆞ지에 本社編輯局으로 到着케 ᄒᆞ시오(二十日以後에 到着ᄒᆞ는 分은 施賞審査에 未參됨으로 認ᄒᆞᆯ 事)

않았으며, 응모기한은 『청춘』과 마찬가지로 두 달 정도였다.

두 매체의 현상문예는 모집부문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매일신보』에 비해 『청춘』이 더 다양한 문학장르를 모집하여 문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형식면에서 볼 때 『청춘』은 각 모집부문별로 문체규정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요건 역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작품의 분량면에서도 『매일신보』의 단편소설이 1,200자 내외로 소품 수준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청춘』은 '매호현상문예'가 2,300자였으며, '특별현상문예'는 11,500자에 달해 단편소설로서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내용면에서 『매일신보』가 '일선동화론'을 논문의 과제로 내세워 노골적으로 총독부의 정책을 홍보하려 한 것과 대조적으로, 『청춘』은 고향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거나 번민과 고뇌, 불평과 불안 등 자기 내면의 풍경을 그려달라고 주문하였다.

응모규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는 1년에 한번 신년 초에만 시행하는 『매일신보』의 '신년문예'와 달리 『청춘』은 매달 현상문예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청춘』이 독자들의 작품을 상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독자와 사상적으로 교제하고, 신문단을 조성함으로써 문예를 부흥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문예 부흥은 『청춘』 필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표였다. 현상윤은 조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예 부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물질과 정신 양 방면에서 진보적 생활을 영위하려면 우리도 문예 부흥과 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말한 문예 부흥이란 조선 사람도 지금부터 지식운동을 해보자는 것으로, 유학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천대받던 지식을 모든 수양 문제의 중심으로 삼자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자연과학 등 조선인에게 특히 부족한 지식을 배우고 익혀, 지식운동을 통해 자아의식을 길러야 현재 조선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15] 그가 말한 문예가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의 문예와 다르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을 통한 자의식의 형성에 주목한 점은 의미가 있다. 자아의 발견과 개성의 발현이야말로 근대문학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이다.

『청춘』 필진들은 지금까지 조선에는 조선인의 사상 감정을 발로하며 조선민족의 근본정신에 접촉한 문학이 없었다고 단언하였다. 『청춘』에 신소설이 한 편도 실리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상정한 문학에서 신소설은 배제되었다. 이들은 오히려 당시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던 신소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16] 이광수는 '父老가 稱하는 文學이란 것과 우리가 부르는 文學이란 것은 語同而意異한 것'이라며, 구습을 탈각한 현대인의 신사상과 감정을 누구나 다 아는 현대어로 쓰는 것이야 말로 신문학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조선의 신문학 건설을 위해서는 조선인의 사상과 이를 담을 문체가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사상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의 정신에 신사상이 점점 발효되고 있으며, 최남선을 비롯한 선구자들이 한문투에서 벗어난 새문체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신문학의 막이 열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광수는 현상문예 단편소설 응모작을 통독하며, 20여 편이나 모인 점, 순수한 현대적 조선문으로 된 점, 조선인의 실생활을 재

---

15) 소성(小星),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의 사적가치(史的價値)를 논하야 조선 당면의 풍기문제에 급(及)함」, 『청춘』 제12호, pp. 33-41. 현상윤은 같은 글에서 현대문명의 정수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이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16) 평파생(平波生), 「제일보(第一步)」, 『청춘』 제13호, pp. 62-63. P군과 R군의 대화형식으로 된 이 작품에는 신소설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新小說! 이란 반가운 「최암」에 마음이 끌녀서 나는 바로 어느 大家의 傑作에 對하야 가지는 精神을 가지고 몃가지 新小說을 닑어보앗네. 그러나 그 材料의 陳腐함과 平凡함에 對하야는 嘔逆이 나고, 作者의 技倆의 淺短과 筆致의 生硬에 對하야는 가려움症이 나고, 全篇을 通하야 理想의 沒却과 意思의 不透明에 對하야는 답답症이 나데."

료로 한 점, 형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신문학의 체재를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10세기동안이나 정지되었던 조선인의 정신의 소리를 들은 점에서 '부활한 靈의 첫소리'라며 의미를 부여하였다.[17]

하지만 기대와 달리 현상문예 시행 초기에는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편집자는 이미 도착한 '매호현상문예' 원고의 수준을 봤을 때, 투고작들이 의취(意趣)와 문사(文辭)에 대한 연마와 조탁이 부족해 작자의 의사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기사묘상(奇思妙想)으로 인생의 본진(本眞)을 묘사하고 세태의 기미(機微)를 발명(發明)하여 신소설계의 천리구(千里駒)가 되도록 더욱 분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특별대현상'은 응모된 성적이 시원치 못해 평가할 여지조차 없다고 평가하였다.[18] 아직 독자들의 작품은 '관찰이 천박하고 묘사는 유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현상문예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문예 부흥이나 신문학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선구자의 지도가 요구되었으며, 『청춘』은 선후감 게재라는 장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당선작만을 게재한 『매일신보』와 달리 『청춘』은 당선작 말미에 선자평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양문고선의 감」, 「현상소설고선여언」 등과 같은 선후감까지 제시하였다. 결국 『청춘』은 신문학 건설에 대한 독자들의 수양과 정진을 당부하는 한편[19], 선자평과 선후감을 통해 신문학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창작 지도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문예 부흥을 도모한 것이다.

---

17) 춘원, 「부활의 서광(曙光)」, 『청춘』 제12호, pp. 18-31.

18) 「매호현상문예」, 『청춘』 제9호, p. 126.

19) "諸君의 一大奮發과 一大努力을 간절히 希望하노이다"(「매호현상문예」, 『청춘』 제9호, p. 126.), "그림을 工夫하여가지고야 그리는것가티 小說도 工夫가 잇고야 짓는 것이오"(춘원, 「부활의 서광」, 『청춘』 제12호, p. 31.), "나는 우리네가 더욱 修養하고 더욱 奮鬪하여서 진실로 新文學의 建設者에게 合當한 事業을 일우기를 바랍니다. 아아 希望만흔 新文壇의 希望만흔 勇士들이시어."(춘원생, 「현상소설고선여언」, 『청춘』 제12호, p. 102.)

3. 현상문예를 통한 시문체의 보급과 확산

『청춘』 제11호 부록에는 '특별현상문예'의 당선작이 실렸다.[20] '특별현상문예'의 모집부문은 논문과 단편소설이었다. 먼저 논문은 두 개의 과제가 주어졌다. '자기 근황을 보지하는 문'은 당선, 선외, 가작을 포함하여 19편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 10편이 게재되었다. 다음으로 '고향의 사정을 녹송하는 문'은 12편의 당선작 중에서 5편이 게재되었다.

논문 부문 최고 당선자인 이경은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해외의 유명한 문학 강의와 논설을 읽고 아동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신의 삶을 그렸다. 차석인 연희전문학교의 김윤경은 이화학당 개교기념 행사에 참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과 여자 교육의 발전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신의 학업 정진에의 다짐을 담아냈다.[21]

노문희와 나시규는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유익한 삶을 위해서는 배우고 궁구해야 한다는 자각을 그려냈다. 이밖에 한동찬은 『청춘』을 읽고 전날 자신의 방황을 반성했다며 부패한 우리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기 위해 아동교육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원해생과 이재갑 역시 경제학을 비롯

---

20) 애초 '특별대현상'으로 모집하였으나 발표 당시에는 '특별현상문예'라는 명칭으로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21) 해당 작품의 선자평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은 全體로 보면 結搆가 不足하고 部分으로 보면 洗練이 不足하야 썩 高手와 妙文으로 許할 수는 업스나, 典實한 맛과 質重한 맛이 全篇에 流溢하고 더욱 文思에 對한 銳敏한 良心과 幸勤한 努力이 歷歷히 想察되니 이러틋 功程을 積累하야가면 깁히 그 將來에 屬望할지라, 이 美點을 取한 것이로다. 文瀾과 詞藻로 말하면 或 다른 篇만 못하다 할 情節이 업지 아니하며 더욱 結尾는 餘韻 잇도록 한 것일지나 失敗에 갓갑다 할지니 作者-모름직이 反省加工할지니"

하여 사회학, 천문학, 지문학 등 구체적인 학문을 언급하며 학문 수양의 의지를 다졌다.

논문 부문의 선자(選者)인 최남선은 대체로 처음 같은 이번 계획이 이만큼 성적을 얻은 것은 성황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논문에 응모한 작품이 50편에 불과했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행문(行文)과 술의(述意)가 대체로 요령 있고, 사조(詞藻) 또한 빈핍(貧乏)하지 않아 의외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최남선은 '자기 근황' 부문 당선작들의 공통적인 특색으로 경우(境遇)와 지망(志望)의 현격한 부조화에서 유래하는 고민 및 번뇌를 그렸다는 점과 자기 개화(改化)에 대한 책려(策勵)가 드러난 점을 꼽았다. 그리고 '고향 사정'에 대한 논문은 '자기 근황'에 비해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자연을 활기(活起)하여 정조(情調)를 완미하는 마음과 지인상여(地人相與)의 제(際)를 심찰하는 눈이 부족함으로 필단(筆端)이 얼핏하면 건삽(乾澁)에 빠져 영활(靈活)의 취(趣)가 적은 것이 큰 흠절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최남선은 논문 응모작 전체를 개괄하며 문(文)이 상(想)을 따르지 못했다며, 현대 청년들의 문장 연습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시문(時文)에 대한 용의가 전혀 없는 교육의 결함을 지목하였다.[22]

단편소설은 18편의 당선작 중에서 이상춘의 「기로」, 주낙양(주요한)의 「마을집」,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 김영걸의 「유정무정」 4편만 게재되었다. 소설 부문의 경우에는 구습 비판이 주된 주제였다. 구습의 사례로는 조혼제도와 축첩제도가 대표적이었으며, 자유연애 및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구사회의 모습도 비판 대상이었다.

김영걸의 「유정무정」은 조혼의 관습으로 열세 살에 결혼하여 부부 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의 삶을 다루었다. 영호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스물세 살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않았다. 유

22) 선자(選者), 「양문고선의 감」, 『청춘』 제11호, pp. 39-40.

학을 하며 연애와 부부관계에 대해 알 기회가 많았지만 정작 아내에게 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순희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박대하던 끝에 아내를 버리고 만다. 순희는 부친 제사를 핑계로 친정에 갔다가 그대로 친정에 머물며 남편의 생각이 바뀌기만 바랄 뿐이다. 시부모와 시누이 명옥의 노력으로 결국 순희가 집으로 돌아오고 영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 그리고 순희가 학질로 앓게 되자 영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아내를 위로한다. 작품에서는 영호의 반성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처리했으나 개연성이 부족하며, 애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작품 말미에 '개성은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체의 결구가 재미있고, 용필도 매우 자유로웠다'는 짧은 선자평이 실렸다.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는 황진사와 범네의 이야기를 통해 축첩제도로 인한 비극을 다루었다. 범네는 황진사의 외손녀로 이들은 범네의 아버지이자 황진사의 사위인 조국장을 피해 도피생활을 한다. 조국장은 양반 출신으로 화류계에서 놀고 촌백성의 계집까지 희롱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처를 세 번, 첩을 열 번 바꾸었다. 범네의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미인이라 조국장의 눈에 들어 결혼을 했다. 부인이 딸을 낳자 애정이 식은 남편은 외도를 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첩의 농간으로 남편의 의심과 학대를 이기지 못한 부인은 자살한다. 아내의 죽음에 정신을 차린 조국장은 부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범네를 위하고 아끼지만, 황진사는 조국장 첩의 농간과 후환이 두려워 범네를 데리고 나와 표량객이 된 것이다. 작가는 인물 간의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축첩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광수는 이 작품이 교훈의 흔적이 없으면서도 고상한 재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자신의 「무정」과 진순성의 「부르지짐」 그리고 이 작품을 조선문단에서 교훈적이라는 구투를 완전히 탈각한 작품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였다.[23]

주요한의 「마을집」은 유학생 최창호의 눈에 비친 암울한 조선의 모습을 담았다. 창호에게는 영서라는 친구가 있다. 영서는 자기 집 하인의 딸 혜숙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결혼을 반대해 혜숙을 집에서 내쫓고 문벌과 지위를 갖춘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강제한다. 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도, 사랑하는 이를 버릴 수도 없는 영서는 창호에게 자기 어머니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한다. 창호는 새사람과 옛사람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면서 용기 없는 영서를 나무란다. 집으로 돌아온 창호는 남편에게 쫓겨난 고모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못하는 집안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과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높은 집과 넓은 도로로 대변되듯 조선의 외양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삶과 사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인식이다. 결국 창호는 이 땅을 저주하며 떠날 것을 다짐한다. 이광수는 이 작품에 대해 간혹 설교를 하려하는 점이 있었지만 신식문체와 착상이 놀랍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신사상의 맹아가 보이는 작품 중에서 가장 출중하다고 하였다. 그는 신시대에 각성한 청년이 구사회를 대할 때 일어나는 비애와 분만(憤懣), 그리고 이를 가르쳐가려 하는 희망을 그렸다는 점을 높이 샀다.[24]

이상춘의 「기로」는 전통적 한학을 부정하고 신학문을 긍정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인공 문치명(文致明)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성으로 유학 가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실한 청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치선(文致仙)과 김철수(金哲洙)는 방탕아로 그

23) 춘원생, 「현상소설고선여언」, 『청춘』 제12호, p. 99. 해당 작품의 선자평은 따로 실리지 않았다.

24) 춘원생, 위의 책, p. 99. 작품이 게재될 때에는 주낙양의 「마을집」으로 실렸으나, 선후감에는 주요한의 「농가(農家)」로 소개되었다. 이 작품의 선자평은 실리지 않았다.

려진다. 주인공의 형 치선은 치명의 공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까짓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사람만 망친다고 믿는다. 경성 하숙집의 손자인 철수는 공부에는 소홀하고 활동사진관만 기웃거리는 인물이다. 결국 치선은 집안을 망치게 되고, 철수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갇히고 만다. 반면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한 치명은 고향에 내려가 자살하려는 형을 구하고, 신학문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킬 계획을 구상한다. 작품은 신학문을 반대했던 가족들의 반성하는 모습과 치명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치명의 선택과 결정을 긍정하며 마무리된다.

이밖에 선외작은 지수(紙數)의 관계로 다음에 기회를 보아 게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작품은 실리지 않았다. 단편소설의 심사를 맡은 이광수는 응모작들의 수준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들었다. 첫째, 순수한 시문체로 쓰여진 점. 둘째, 엄숙하고 정성스러운 태도로 쓴 점. 셋째, 전습적이고 교훈적인 구투를 벗어나 예술적 기미를 보인 점. 넷째, 이상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태도로 현실을 그리려 한 점. 다섯째, 작품에 신사상의 맹아가 보이는 점 등이었다.[25] 현상문예 당선작에 대한 이런 평가는 「부활의 서광」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졌으며, 이광수 역시 최남선과 마찬가지로 내용과 형식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상정했음을 보여준다.

당선작의 내용과 선자평, 그리고 선후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상문예 당선작 선정의 주된 기준은 상(想)과 문(文)이었다.[26] 작품의 내용과 형식(문체) 두 요건이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25) 춘원생, 위의 책, pp. 97-102.

26) 선자(選者), 「양문고선(兩文考選)의 감(感)」, 『청춘』 제11호, p. 40. "考選의 標準은 文과 想을 分하야 想을 主하고 文을 次호대 文이 또한 成樣한 것이라야 取하얏슴은 毋論이니라"

준거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청춘』필진이 신사상과 문체를 신문학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파악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당선작이 다룬 내용은 모집부문과 과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청년학생들의 삶과 고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이는『청춘』의 주된 독자층이 청년학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7] 대다수의 당선작들은 청년학생을 주인공으로 삼았으며, 현실을 배경으로 실제 삶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에게 신학문을 익혀 문명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당위였다. 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탓에 이들이 문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의 전망까지 제시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들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조혼이나 축첩 등 조선사회에 뿌리박힌 구습을 비판하거나 막연한 문명에의 동경, 청년학생들이 자기 생활에서 느끼는 고민과 방황 정도였다. 식민지라는 시대여건상 국제 정세나 정치 문제에 대한 내용 역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청춘』은 실제 정간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상문예 당선작이 검열로 인해 삭제되기도 했다. 따라서 편집진은 여전히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대외적인 작품 선정 기준은 내용과 형식 두 가지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형식적 요건의 핵심은 문체였다. 현상문예의 응모규정에서부터 선자평, 그리고 선후감에 이르기까지『청춘』은 일관되게 문체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다. 응모규정에 따르면 '고향 사정'의 문체는 임의로 선택하되 장황하지 않고, 번잡하지 않으며 모든 사실을 요리안배하여 통일과 조직 있는 문장으로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기 근황'도 문체는 임의로 선택하되 순한문만 피해달라고 하였

27)「매호현상문예」,『청춘』제9호, p. 126. "靑年學生으로 讀者의 大部를 차지하는 터이매 試驗 其他 學事의 事情이 응당 多大한 影響을 波及하얏겟지오마는"이라는 진술을 통해서도『청춘』의 주된 독자층이 청년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끝으로 '단편소설'은 외잡에 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재와 의장은 임의로 하고 서설체, 기사체, 서한체 모두 무방하다고 하였다. 응모규정만 봤을 때 모집부문별 문체 규정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세 부문 모두 문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각 모집부문별 1등 당선작의 일부를 옮긴 것이다.

(가) 암만해도글읽는것이 나의生涯의主體오 骨子라할것이로소이다 글을읽는다하는것보다글을읽으려하고글읽는것이조흔줄알미로소이다 나의讀書에 關한素養은넘어도 貧弱하외다體質이 虛弱하고才調-至鈍하엿슴으로 嚴重한監督下에서 漢籍으론通鑑節要와 論孟等四書박게배운것이업고 學校工夫라고는 京城某中學校에서 석달동안단여보앗나이다[28]

(나) 靑春足下여此等古跡을搜羅하며樂聞하는苦癖은 實로我의同情하는 바라我는此碑의 全體를撮影하야 足下의紙面을 裝飾코저함이 已久로되事가 心을從치안는者-亦多하도다 聊히數行의敍述로써足下의紙面을 藉하야廣히 江湖君子에게此碑를紹介하고因하야 保寧의 光榮을闡揚코저하노라[29]

(다) 南門을궁글너 門안에드러섯다 길복판에는 조악돌을 만히ㅅ ㅏ ㄹ앗다 길左右에는 새로지은집도잇고 半쯤허러바린것도잇다 木材를 이리뎌리어지러히 벌니여노앗다 붉은벽돌을 군대군대 싸아노은것도잇다 새로지은집은 길에서 한間씩이나 쑥드러갓다 京城은 只今 좁은길을넓히고 낡은집을허러 새집을짓는中임을 알앗다[30]

---

28) 이경, 「자기근황을 보지하는 문」, 『청춘』 제11호 부록 pp. 1-2.

29) 송완근, 「고향의 사정을 녹송하는 문」, 『청춘』 제11호 부록 p. 28.

30) 이상춘, 「기로」, 『청춘』 제11호 부록 pp. 41-42. 이 작품에 대한 이광수의 선자평은 다음과 같다. "平凡한事實을가지고 滋味잇게 글을만들엇다. 이글을取한것은 決코 그勸善懲惡的임에 잇지아니하다. 勸善懲惡的이면서

위의 인용문은 자유롭게 문체를 제시했던 규정과 달리 모집 부문별 문체의 차이를 보여준다. 문장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할 때 (가)와 (나)는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다)는 한자의 비율이 현격하게 낮다. 그리고 문장의 종결어미의 경우에도 (가)와 (나)는 '~로소이다', '~하외다', '~나이다', '~하도다', '~하노라' 등을 주로 사용하는 데 반해 (다)는 'ㅅ다'를 일관되게 사용하였다. (가)와 (나)는 세부적인 과제는 달랐지만 논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다)는 단편소설이었다. 결국 논문과 단편소설의 문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논문은 한자 표기를 허용하되 우리말 어법에 맞는 글쓰기를 지향하였고, 단편소설은 극히 제한적으로 한자 표기를 허용한 한글체 문장을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용문의 문체에 대한 평가는 선자평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근황' 부문 1등 수상작인 (가)에 대해 최남선은 문자의 용법과 사구의 배치에 간혹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정(情)과 리(理)를 모두 갖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 보기 드문 가작(佳作)'이라 평하였다.[31] 그리고 '고향 사정' 부문 1등 수상작인 (나)에 대해서도 빠뜨린 글자가 있고 조사(措辭)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전체 문장을 해치지 않는다며 '시문(時文)의 고수'라고 평하였다.[32] 반면에 아래의 인용문에 대해서는 요령을 약득(略得)하였음을 취하지만 시문이 아닌 것이 유감이라고 하였다.

도 勸善懲惡냄새가아니나고 가장 逼眞하게 流暢하게 그린것이 이글을 取한緣由다."

31) 「選者評」, 『청춘』 제11호 부록 p. 3. "情理ㅣ俱極하야惻惻히人의心을 動하니참罕觀할佳作이라措辭練句에 間或未洽이 잇슴은白玉의微瑕라할는지"

32) 「選者評」, 『청춘』 제11호 부록 p. 28. "敍述도잇고品評도잇스며感慨도잇고興嗟도잇스니時文의高手임을知할지라落字와措辭에可議處ㅣ容有할지라도渾然한全部文章을害한다못할진저"

(라) 且鄙里東岸에有五六圍槐樹하야 淸陰綠影이廣滿 地面하니 如作浮言이면 覆四隣도可也라 蒸熱溽暑라도此槐陰下엔凉風이自生하야 不堪久坐하며有時乎靑眼 白面이携手相集하야詠詩屬文하야 以致雅會하고 旭朝斜日에樵童牧竪의弄笛而還은 無處無之로되 在此槐亭하얀必招特趣하고自有快感하나이다[33]

인용문 (라) 역시 논문으로 '고향 사정' 부문의 선외가작이다. 표현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전부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 사용은 최소화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위 문장을 한자음만으로 읽을 경우 '여작부언', '불감구좌' 등으로 읽혀, 한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순한문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也', '以', '之' 등의 한자 어조사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한문문장에 가깝다. 선자(選者)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 작품에 대해 시문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편집진은 당선작과 선자평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문체 규정의 세부 내용을 보강하고, 독자들에게 시문체가 문체 규정의 중요한 조건임을 알린 것이다.

단편소설의 고선을 맡은 이광수 역시 응모작들의 수준이 진보되었음에 놀라며 그 첫 번째 근거로 시문체의 사용을 들었다. 그는 전체 작품이 순수한 시문체로 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띄어쓰기, 의문표와 감탄표의 사용, 본문과 회화의 구별, 쉼표와 마침표, 생략표 남용 등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34] 결국

---

33) 이강석, 「고향의 사정을 녹송하는 문」, 『청춘』 제11호 부록 p. 38.

34) 춘원생, 「현상소설고선여언」, 『청춘』 제12호, p. 97. "그中에는 毋論 文의 體裁를 成하지못한것도 잇지오. 假令 全혀 句節을 쩨지아니하고 죽 닛대어 쓴것이라든지, 或 句節을 ㅉㅐ더라도 規則업시 쩬것, 假令「그때에 그는 겨오 젓떨어진 아희엇섯다」할 것을 「그때에그는 겨오 젓떨어진아희엇섯다」 하는것이라든지, 「?」와 「!」를混同하야 感嘆할곳에 疑問票 「?」를 달며 疑問할곳에 感嘆票「!」를 다는것이며 또 本文과 會話의 區別이 업시, 맛당히 引用票「」을 달 것을 아니단것이며, 「,」, 「.」갓흔 句讀을 전혀 달

논문과 단편소설 모두 시문체라는 조건이 당선작 선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룬 '특별현상문예' 외에 『청춘』은 '매호현상문예'도 동시에 시행하였다. '매호현상문예'의 모집부문은 시조, 한시, 잡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등으로 문예물을 주로 다루었다. '매호현상문예'의 당선작 중에는 '특별현상문예'에서 제시한 과제를 다룬 작품이 있어 두 현상문예의 연속성을 알 수 있다.[35] '매호현상문예'의 문체규정 역시 시문체가 핵심이었다. 보통문은 순한문체를 제외하는 것에 그쳤지만, 단편소설은 직접적으로 '한자 약간 섞은 시문체(時文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시문체는 당선작 선정에도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응모자들은 현상문예의 문체규정을 숙지하여 모집부문별로 그에 해당하는 문체로 작품을 창작하였다.

> (마) 假令於今路傍에 一金塊가 有하다하라 大賢은 人生을達觀하고 道德을 涵養하야 心에 常히 恰恰한餘裕- 有하나니 然則如何히 燦然한金塊-足下에觸하며 恍惚한色彩-視神을眩할지라도 怡然自若하야 頓不顧見할지오 大愚는 是에反하야 事物을理解할智力이無하고 美麗를求할欲望이無하야 但히其日其日의 生活을繼續하야 自身의一生을 五里의霧中에彷徨케하나니 然則如何히 燦然한金塊- 足下에觸하며 恍惚한色彩-視神을眩할지라도 黃金의何物임을不知하고 塵土로同視하야 悠悠히無意識으로 過去할지니라 然而大賢大愚- 共히 黃金을 拾치아니하는點은 互相一致치아니하는가[36]

지아니한것과 省略票「……」을 或은 濫用하며 或은 두서너字자리 卽「……」이만큼 할것을 半줄이나, 或은 한줄, 甚한것은 두줄 석줄이나 點線을 친것이며, 一節一節 節을 떼지아니하고 처음부터 끗까지 단節로 나려쓴것等 퍽 無識한것도 만치마는 大槪는 자리잡힌 훌륭한 時文입데다."

35) 『청춘』 제13호에는 오기환과 박재영이, 제14호에는 한호석이 「近況報知」라는 제목으로 각각 선외가작과 가작으로 선발되었다.

36) 유종석, 「대현대우설(大賢大愚說)」, 『청춘』 제10호 p. 108.

(바) 大都會의번화 新文明의光彩가 완연하다 電車는쏴- 自働車는 쌩! 쌩! 빈틈업시통행하는自轉車는 씌르릉씌르릉 오고가는行人은 모다찬란헌衣服에 의긔양양하다 한참 이광경을보다가 自己의몸을도라보니 굵다란무명옷에 때무든운동모자이라 한편으로는 남의모양이부럽기도하고 自己의行色이붓그럽기도하다 또 한편으로는 每日每日이街道로往來하는 몃千名 몃萬名사람이 이-京城이란小天地안에서 무엇을하여 저럿케 사치시러운生活을 할수가잇는가 하는생각도이러나고 또한편으로는 왜나는 저 사람들처럼 活社會에 活動할能力이업고 그-쓸쓸하고적막한山村에서 一生을지내는가 하는身勢恨歎도이러난다[37]

위의 사례는 모집부문에 따라 독자가 문체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두 작품의 작자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자의 비중이 큰 (마)는 보통문이며, 상대적으로 한글의 비중이 큰 (바)는 단편소설이다. (마)는 '於', '然則', '如何', '然而', '是' 등 한자 어조사가 쓰였으며, 어휘도 '足下', '頓不顧見', '無하고', '不知하고', '心에', '觸하며' 등과 같이 한문문장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바)에서는 '또', '저럿케', '모다'와 같이 한글 부사를 사용하고, '無하고'를 '업고'와 같이 되도록 우리말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쌩쌩', '씌르릉 씌르릉' 등 의성어를 자주 활용하였다. 이밖에 (마)는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편이고, '~ㄹ지오', '~ㄹ지니라'와 같은 종결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해 (바)는 문장 길이가 짧고, '~하다', 'ㄴ다' 등의 종결표현을 사용하였다.

시문체는 당대 언중의 언어 관습을 반영한 문체를 일컫는다. 하 지만『청춘』의 시문체는 당시 통용되던 모든 문체를 의미하지 않았다. 응모규정에서 확인했듯이 순한문체는 배제되었으며, 글의

37) 유종석,「냉면한그릇」,『청춘』제10호 p. 109.

종류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다. 논문과 보통문의 경우에는 한자의 비중이 높았다. 기본적인 어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장구조가 한문 문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편소설의 경우에는 인명이나 지명 등 극히 일부 어휘만 한자로 쓰였을 뿐, 대부분의 문장은 한글로 이루어졌다. 현상문예 당선작으로 선정된 예문들을 볼 때, 시문체는 우리말 어법에 따른 문장 쓰기를 지향했으며, 글의 종류에 따라 한문 문장의 개입 정도가 다른 문체였던 것으로 보인다.[38]

『청춘』 필자들은 '현대인의 신사상과 감정을 누구나 다 아는 현대어로 쓰는 것'이 신문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신문학 건설을 위해서는 조선인의 사상과 이를 담을 문체가 필수 요건이라 하였다. 그래서 '특별현상문예'와 '매호현상문예' 모두 문체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선자평과 선후감을 통해 시문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시문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은 언문일치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39] 『청춘』 필자들은 다른 양식에 비해 단편소설의 문체는 최대한 우리말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편소설은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글에 비해 사건 및 인물 심리의 묘사와 그로 인한 감정의 전달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편소설은 한자로 표기된 부분을 한자음으로 읽을 경우 자연스럽게 뜻이 통할 정도로 우리말 어법에 가까웠으며, 띄어쓰

38) 시문체의 개념과 양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상석의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지식산업사, 2008)과 「1910년대, 국역의 양상과 한문고전의 형성」(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 제8권, 2010, pp. 63-88.), 시문체의 용례에 대해서는 김지영의 「최남선의 『시문독본』 연구」(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3권, 2007, pp. 83-129.), 안예리의 「시문체의 국어학적 분석」(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제46권, 2012, pp. 233-264.) 등을 참조할 것.

39) 김미정, 앞의 논문, p. 168. 김영민, 「한국 근대문체의 형성 과정」,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5권, 2017, pp. 49-51.

기를 비롯해 문장부호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규범이 제시되었다.

'매호현상문예'는 선외작과 가작은 명단만 발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입선작만큼은 최대한 지면에 게재하였다. 당선작의 게재는 문장 연습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선본(善本)을 제공함으로써 문체 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은 '특별현상문예' 선후감에서 '고향 사정'이 '자기 근황'에 비해 성적이 좋았다고 평가하며, 독자들이 이전부터 이러한 종류의 글을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진술은 선본(善本)과의 잦은 접촉이 글쓰기 양식의 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춘』 '매호현상문예'의 응모규정에는 타인의 개찬(改竄)이나 표절을 발견하여 고발하면 고발인에게 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로 볼 수 있으며 창작물로 제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청춘』 제12호에 실린 김윤경의 「행복된 배필」은 창작물이 아니었다.[40] 『청춘』 제13호에 실린 「전장기담」도 창작물이 아닌 번역물이었다.[41] 창작을 전제로 한 현상문예임에도 불구하고 창작이 아닌 번역물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 역시 독자들의 창작물을 구하기보다 시문체의 보급에 고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시문체 보급의 주역은 『청춘』의 독자들이었다. 앞서 이 잡지의 주된 독자가 청년학생임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현상문예에 당선된 당선자를 보면 다시 문학가, 교육가, 한글운동가로 세분할 수

---

40) 김윤경, 「행복된 배필」, 『청춘』 제12호, p. 110. "이 原文은 New National Fourth Roader의 Lessauxx(Page 95)인데 韻律과 句調는 不關하고 다만 意味만 옴기어 볼까할 것, 工課를 自習하는 中, 그 高尙한 뜻에 醉하여서 옴기기를 試驗함이올시다"

41) 김윤경, 「전장기담」, 『청춘』 제13호, p. 100. "이 이야기는 戰爭으로부터 傳하는 事實을 飜譯하여 뼈를 삼고 거긔에 살을 조곰 올리어 보노라 한 것"

있다.[42] 문학가 그룹은 신인 발굴과 관련하여 이미 다루었는데,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는 만큼 문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문체 규정에 따라 작품을 창작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교육가 그룹은 학생과 교사를 모두 포함한다. 해당 그룹에는 고문용(경성의학전문학교), 김윤경(연희전문학교), 노문희(용천 협창학교)[43], 박연의(경성 중앙학교), 백낙영(경성 휘문의숙), 서정선(경성 중앙학교), 설형식(경성 중앙학교), 성도(자성공립보통학교), 신영철(한산공립보통학교), 장사명(선천신성중학교), 정황진(동경 曹洞大學), 주요한(동경 명치학원), 차용운(원산사립진성여학교), 최장부(영변 숭덕학교), 최중함(정주 오산학교), 최홍범(회령 보통학교, 회령 보흥학교), 하태용(마산 창신학교), 홍기주(진남포 삼숭학교) 등이 있다. 이밖에 주병건은 1917년 당시 충남 홍산공립보통학교 훈도였으며, 한동찬은 천안공립보통학교 훈도였다. 박영곤은 학생인지 교사인지 불분명하나 1923년에는 경북 양동 공립 보통학교 훈도였다. 일본어에 국어 자리를 내준 1910년대에 이들 학생 또는 교사들은 『청춘』을 통해 문체 규정을 익히고 시문체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조선어 및 근대문학의 확산에 기여한 것이다.

마지막 그룹은 한글운동가인데, 특히 주시경 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다. 〈한글모죽보기〉[44]에 실린 강습생일람을 참조한

---

42) 몇몇 당선자의 경우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세 분야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다. 이밖에 다음의 사례도 있다. 1917년 당시 김두식은 평안북도 선천군 군서기였으며, 이운벽은 함경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소속의 서기였다.(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참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차용운은 원산 기독교청년회 토론회에서 연사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종교활동가로 추정할 수 있다.(『동아일보』 1920년 6월 12일 4면 5단 기사)

43) 『개벽』 제13호(1921년 7월 1일) 현상문예 소품문에 「석양」이 3등으로 당선되기도 하였다.

44) 한힌샘 연구 모임, 『한힌샘 연구』(한글학회, 1988)의 부록으로 〈한글모죽보기〉 영인본이 실려 있다.

결과, 김형원(중등과 4회 졸업), 배재황(고등과 2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엄항섭(고등과 5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이재갑(초등과 1회, 중등과 4회, 고등과 4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정열모(중등과 2회, 고등과 2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주병건(고등과 2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한동찬(중등과 4회 졸업), 한현상(고등과 5회 졸업, 언문연구회 특별회원) 등이 한글운동에 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윤경은 상동청년학원에서 주시경에게 수학한 직계제자였다.[45] 주시경의 제자들 중에서 김윤경, 배재황, 주병건, 한동찬 등은 현상문예에 지속적으로 투고하여 중복당선 되기도 하였다. 누구보다 한글 문장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을 이들의 작품이 반복적으로 당선되어 지면에 자주 노출될 때의 효과는 자명하다. 이들의 작품이 다른 독자들에게 선본으로 제시되어 시문체의 보급 및 확산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다.

한글운동에 관여한 인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글 규범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데에 있었다. 『청춘』 현상문예 응모규정에 시문체가 강조된 것을 보더라도 최남선 역시 문체에 관심이 많았다.[46] 『청춘』에 한글운동 그룹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두 집단의 이해가 부합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최남선과 주시경의 친분 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청춘』 창간호에는 「주시경

45) 이밖에 '특별현상문예' 논문 부문 1등 당선자인 이경은 현재 어린 아동들에게 정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자기 근황을 전했는데, 잊을 수 없는 은사로 주시경을 꼽았다. 그와 주시경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한글 보급에 매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경 역시 한글운동가로 분류하였다.

46) 『청춘』 제4호에는 「한글 새로 쓰자는 말」을 실어 한글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된 내용은 낱글씨의 자리를 그 소리 나는 자리대로만 쓰자, 가로쓰기를 하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자, 묶은 덩이를 풀어 쓰자, 띄어쓰기를 하자, 아래아 등 쓸데없는 글씨는 쓰지 말자 등이었다.

선생역사」가 실려 있는데, 여기에 조선광문회와의 인연이 언급된다. 이 외에도 최남선은 『청춘』 제2호에 「한힌샘 스승을 울음」이라는 시가를 통해 주시경의 죽음을 추모하기도 하였다.

주시경은 소리와 괴리를 보이는 한자를 폐지하고 문자 표음주의에 따라 우리말을 표음문자인 국문으로 적을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언어 단위를 고정시켜 표기하는 형태음소적 원리를 상정하고 이에 맞추어 국어, 국문을 수정, 통일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모두 말과 글을 같게 하여 그가 판단한 언문부동의 폐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뜻을 둔 것이다. 궁극적으로 문자 표준어의 제정과 교육을 통해 어문을 통일하고 국성을 진흥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강을 도모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다.[47] 최남선은 주시경의 이러한 목표에 공감했고, 주시경 사후에는 그의 제자들이 최남선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문체로 된 문학작품을 직접 창작하는 한편 현상문예 당선작과 선자평을 지면에 발표한 것이나, 신문관을 설립하여 각종 문예서적을 출판한 일[48], 그리고 문장교본의 일종인 『시문독본』[49]을 출간하는 등 『청춘』 편집진의 작업은 그들의 지향을 잘 드러낸다. 시문체를 근간으로 한 문장 규범을 확립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효

47) 정승철, 「주시경과 언문일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12권, 2003. p. 46.

48) 『청춘』 현상문예의 가작 또는 선외가작에 선발된 응모자에게는 도서를 증정하였다. 『위인 원효』, 『위인 린컨』, 『만인계』, 『허풍선이긔담』, 『기독교의청년』 등이 증정도서였는데, 이들은 모두 신문관에서 발행한 도서였다.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pp. 101-104.)의 〈표 8〉 '신문관발행서목' 참조

49) 『시문독본』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여 시문체의 유형과 특징을 밝힌 연구로는 김지영(앞의 논문, pp. 83-129.)과 안예리(앞의 논문, pp. 233-264.)가 대표적이다. 해당 연구는 『청춘』에 활용된 다양한 문체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과적으로 전파하고자 한 것이다. 『청춘』 현상문예란에 실린 다양한 글쓰기는 시문체의 실험으로 볼 수 있으며, 현상문예 당선작의 게재는 시문체 보급의 한 사례를 보여준다. 현상문예는 시문체의 실험과 보급 및 확산의 구체적인 사례였던 것이다. 결국 『청춘』은 '우리글로 우리의 사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신문학 건설의 명제를 시문체를 통해 구체화했으며, 현상문예를 시행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나가며

『청춘』은 1910년대 근대문학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상문예를 시행하여 당선작을 발표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문단에서 활약하게 될 신인을 배출함으로써 문단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시문체로 대변되는 근대적 문체규정의 정립과 보급에도 큰 공헌을 하였다. 『청춘』의 현상문예는 '특별현상문예'와 '매호현상문예' 두 종류가 있었다. '특별현상문예'가 시문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문체의 정립에 기여했다면, '매호현상문예'는 시문체의 확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청춘』 필진들은 조선 문예의 부흥을 목적으로 신문학 건설에 매진하였다. 그들은 '현대인의 신사상과 감정을 누구나 다 아는 현대어로 쓰는 것'을 신문학으로 규정하고, 현상문예를 시행하여 신문학 확산에 앞장섰다. 그리고 신문학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신사상과 문체를 제시하고, 이를 현상문예 당선작 선정에도 반영하였다. 하지만 시대적 한계로 인해 독자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구습 비판이나 청년학생들의 고민과 방황, 또는 막연한 문명 지향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당선작 선정 기준으로 내세웠지만 여러 제약으로 인해 실제로는 형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형식적 요건의 핵심은 문체였고, 구체적으로 시문체였다. 시문체는 우리말 어법에 따른 문장 쓰기를 지향했으며, 글의 종류에 따라 한문 문장의 개입 정도가 다른 문체였다. 『청춘』 필진들은 현상문예의 응모규정을 비롯하여 선자평과 선후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문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이 시문체를 강조한 것은 시문체의 사용 여부가 신문학 성립의 전제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언문일치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청춘』은 종간을 맞이할 때까지 현상문예를 시행하며 당선작 게재에 힘썼다. 심지어 창작을 전제로 한 현상문예임에도 번역물까지 허용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독자들에게 선본(善本)을 제공함으로써 시문체 습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문체 확산의 주역은 『청춘』의 독자들이었다. 문학지망생, 학생과 교사, 한글운동가들은 시문체로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김윤경과 배재황 등 주시경의 제자들은 현상문예에 지속적으로 투고하여 중복당선 됨으로써 한글문장 규범의 보급에 큰 공헌을 하였다. 『청춘』은 '우리글로 우리의 사상을 담아내야 한다'는 명제를 시문체를 통해 구체화했으며, 현상문예를 시행함으로써 시문체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결국 『청춘』의 현상문예가 근대문학뿐만 아니라 근대어학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청춘』, 『매일신보』, 『동아일보』, 『개벽』

2. 논문

김미정, 「근대초기 현상공모 일고찰」, 반교어문학회, 『반교어문연구』 제18권, 2005, pp. 151-181.
김영민, 「한국 근대문체의 형성 과정」,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5권, 2017, pp. 39-77.
김영민, 「근대 매체의 독자 창작 참여 제도 연구(1)」,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43권, 2011, pp. 97-128.
김영철, 「신문학 초기의 현상 및 신춘문예제의 정착과정」,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제98권, 1987, pp. 211-238.
김지영, 「최남선의 『시문독본』 연구」,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3권, 2007, pp. 83-129.
신지연, 「『청춘』의 독자문예란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 제53권, 2004, pp. 485-512.
안예리, 「시문체의 국어학적 분석」,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제46권, 2012, pp. 233-264.
양문규, 「1910년대 잡지 매체의 언어 선택과 근대독자의 형성과정」,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의 연구』 제43권, 2011, pp. 163-190.
이경현, 「『청춘』을 통해 본 최남선의 세계인식과 문학」,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 제43권, 2008, pp. 325-346.
임상석, 「1910년대, 국역의 양상과 한문고전의 형성」,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 제8권, 2010, pp. 63-88.
정승철, 「주시경과 언문일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12권, 2003. pp. 33-49.
정영진, 「제도로서의 작가의 형성 과정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68권, 2017, pp. 163-192.
정영진, 「현상 단편소설 모집의 기원 『장학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42권, 2016, pp.89-117.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제11권 제45호, 2004, pp. 221-260.
한진일, 「근대 단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3. 단행본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김규환, 『일제의 대한언론·선전정책』, 이우출판사, 1978.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한힌샘 연구 모임, 『한힌샘 연구』, 한글학회, 1988.

4. 기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투고일**: 2020. 2. 14 **심사완료일**: 2020. 3. 18 **게재확정일**: 2020. 3. 20)

손동호
소 속: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1 미래관 424호
전자우편: sondongho3@yonsei.ac.kr

[Abstract]

Literary Contest for Prize of "Cheongchun" and Hangeul Movement in the Early Modern Days

Son, Dong-ho

"Cheongchu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literature. However, because of the opportune limitations of colonial times, only limited content could be coped with. Because of these constraints, formal requirements were so important that the core was 'current style of writing'. where the degree of Chinese sentence involvemen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writing. "Cheongchun" held a literary contest for prizes until the cessation of its publication, endeavoring to publish prize winning works. This effort seems to induce 'current style of writing' acquisition by providing sample scripts for readers who need to practice sentences.

The protagonists of the 'current style of writing' spread were readers of "Cheongchun". In particular, Hangeul movement writers, including Ju Shi gyeong's disciples, contributed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Hangul norms. "Cheongchun" embodied the proposition that "we must capture and show our thoughts in our writing" through the 'current style of writing', and by producing a literary contest for prizes,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the 'current style of writing'. In the end,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literary contest for prize of "Cheongchu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modern linguistics as well as the modern literature.

Key words: "Cheongchun", modern literature, new literature, current style of writing, literary contest for prize, Ju Shi-gyeong, readers